

효천

5학년

테마독서 "통일"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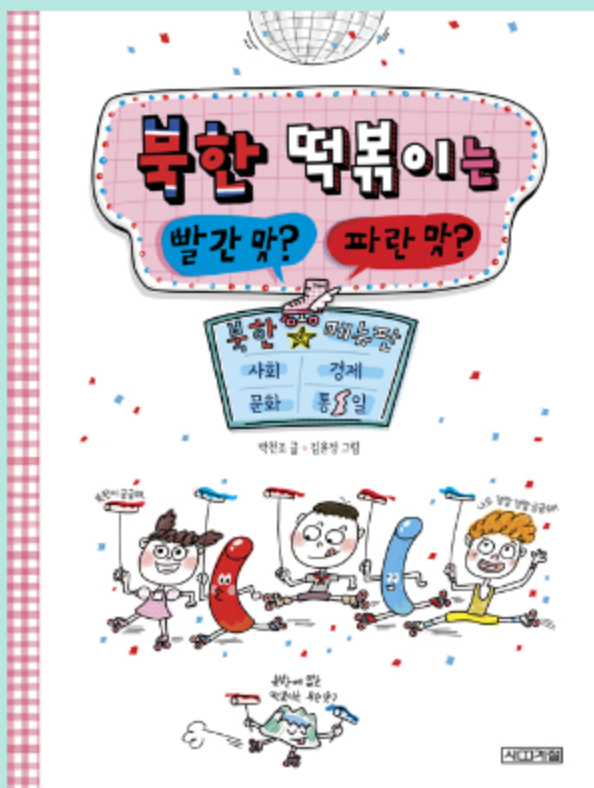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박경희/ 뜨인돌어린이

중국에 사는 무산이는 국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공원을 떠돌며 생활해요. 그런데 예전에 사라진 엄마가 무산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사람을 보냈대요. 무산이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엄마를 만나겠다는 생각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산이에게는 한국에 도착하는 것만큼 힘든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무산이는 무사히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북한 떡볶이는 빨간 맛? 파란 맛?〉 박천조/ 사계절

거리는 가깝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한 북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북한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 북한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배워봐요.



효천

5학년

테마독서 "통일"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강미진/ 아르볼

우연히 지호의 메신저 친구 추천 목록에 뜬 은심이는 북한 친구래요. 우리랑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나이를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설날에 먹는 음식도 조금은 달라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과연 둘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익환이와 개성 친구들> 조성준/ 북스토리아이



익환이는 할아버지가 남쪽으로 피난 오면서 가져온 학교 보물 '조선팔도도'를 원래 있던 개성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어요.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아빠의 공장 차에 숨어 무사히 개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어요. 무사히 시내로 들어간 익환이는 북한 아이들을 만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도와주자는 아이들과 경찰서로 끌고 가자는 아이들로 나뉘는 가운데 익환이는 무사히 개성 모험을 끝낼 수 있을까요?

효천

5학년

테마독서 "통일"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먼저 온 미래> 김정희/ 사계절

은별이네 식구는 탈북을 결심하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합니다. 2년 동안 옮겨 다니며 살다가 한국으로 어렵게 들어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신분이 확인되고, 하나원과 삼죽 초등학교에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배웁니다. 과정이 끝나고 일반 학교에 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말과 태도에 차별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요. 은별이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

- 카이사르 -